

# 이항로 군수 대법 판결 임박

## 진안군민들, 결과에 '축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 군수의 최종 대법원 상고심이 임박해 오면서 군민들이 축각을 끈두세우고 있다.

최근 진안의 많은 군민들은 정작 이 군수가 재판과정에서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군수는 1월 측근 4명과 공모해 지난 2017년 설과 추석명절에 홍삼액 기스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그동안 법정에서 측근을 통해 명절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2월1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6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측은 이 군수가 선물을 제공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결국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군수는 줄곧 무혐의를 주장하며 억울해 하고 있다.

이에 군민 절반가량인 1만3000여 명이 군수직 유지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지난 5월 법원에 제출했다.

군수의 공백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들이 표류하고 있고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적시하고 진실한 판단으로 이 군수가 하루 빨리 오명을 벗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군민과 함께 소원한다고 탄원했다.

이 군수측은 최근 무혐의 처리된 도내 A축협 조합장의 사건과 비교해 희망을 걸고 있다.

전북경찰이 올해 초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사골세트를 물린 혐의를 들어 A 조합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증거가 아니라며 재수사를 지시하고 수개월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이 군수측과 진안군민들은 "1~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 군수가 억울함을 호소한 것은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실제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어린이 홍삼 제품 시장 활성화 기대

## 진안홍삼연구소, '어린이 홍삼 스틱젤리' 기술이전 계약 체결

(재)진안홍삼연구소(소장 박충범)는 지난 6일 관내 홍삼제품 가공기업인 (유)나눔푸드(대표 김치훈)와 '어린이 홍삼 스틱젤리'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홍삼 스틱젤리는 진안홍삼연구소가 연구 개발한 제품으로, 어린이의 기호에 맞게 과일농축액으로 홍삼의 쓴맛을 완화시키고 쫄쫄한 식감을 살린 스틱형 젤리다.

특히 화학적인 합성첨가물이 없는 어린이용 홍삼제품으로 안심하며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

(유)나눔푸드는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급식 서비스, 도시락 제조사업 분야와 지역 홍삼을 이용한 홍삼제품을 제조하는 홍삼사업부 운영되고 있다.

김치훈 나눔푸드 대표는 "이번 기술이전 협약을 통해 어린이 홍삼 제품 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진안홍삼 산업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충범 진안홍삼연구소장은 "진안홍삼연구소가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제품의 제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제품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진안홍삼 가공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무주, 반딧불이 국제환경심포지엄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2019년 반딧불이 국제환경심포지엄이 지난 6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

사)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위원장 진용훈)가 주최하고 한국반딧불이 연구회가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한국과 중국, 대만의 반딧불이 전문가들과 환경 관련 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기념식과 1부 국외 반딧불이 연구 및 보호활동, 2부 국내 반딧불이 연구 및 보호활동, 3부 종합토론, 4부 반딧불이와의 만남(현장 관찰)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분당환경시민모임 정병준 대표의 진행으로 중국 호남성 상담시에 계반딧불이 연구교육센터 유위성 대표가 "중국 반딧불이의 경제현황과 발전추진 분석"에 관한 내용을, 대만 화베이 대학 오가웅 교수가 "수서 반딧불이인 Aquatica ficta의 서식지 복원"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응용생물시험연구소 총책임자 이기열 본부장이 진행한 2부에서는 주)다키지 정재원 대표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무주지역 미래기후 전망"에 대해, 고신대 의생명과학과 문태영 교수가 "부산광역시에서 장기 생태학적 반딧불이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위 건강에 좋은 '열매마' 재배 성공

## 진안군, 9월부터 본격 출하

진안군은 지난 6일 아열대성 작물인 열매마 시범재배가 성공하면서 9월부터 본격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는 모양에 따라 장마, 단마, 둥근마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열매마는 뿌리가 아닌 지상부에 열매를 맺는 작물로 병해충이 거의 없어 유기농 재배도 가능하다.

열매마는 무신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화불량에 특효라고 알려져 있으며 '산속의 장미'로 불릴 만큼 남성 스테미나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도 알려진 식품이며, 칼슘과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다고 한다.

열매마 한 주당 200개 내외의 열매를 맺으며, 열매 무게는 200g(±50g)으로 어른 주먹만 하고 생으로 먹으면 둥근마 맛이 나며, 익혀 먹으면 감자와 고구마 맛도 난다. 판매는 kg당 1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시범 재배에 성공한 김영웅 농가는 "대한민국 열매마 7호 농가로 시범재배에 성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재배기술이 부족하면 열매마의 크기가 크지 못하고 덩굴만 무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과수농가 일손 걱정 덜었다

## 무주군, 필리핀 실랑시와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은 지난 7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필리핀 카비테주 실랑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두 나라 양 지자체 간 농업발전 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코리에 포블레티(Carie F. Poblete) 실랑시장, 그리고 농협관계자들과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내용이 담겨 기대를 모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2020 봄 시행 / 사과 꽃 · 잎 따기, 수확 / 3개월 체류, 연장을 통한 최장

6개월 체류 가능)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실랑시는 무주군 여건에 적합한 계절근로자 선발과 사전교육 등을 진행하고 무주군은 근로·복지후생 등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된다.

황인홍 군수는 "지자체 간 협약이 농촌지역과 근로자들 모두에게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부족이 심각한데 오늘 협약으로 농산물 수확으로 한창 바쁜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근로자들에게는 무주가 더없이 좋은 일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진안·용담향교 추계 석전대제 봉행

진안군 진안향교(전교 이병기)와 용담향교(전교 안기현)는 지난 7일 지역 내 현관 및 재관, 유림 등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계 석전대제를 각각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영신례(迎神禮)를 시작으로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飮福禮)를 거쳐 망예례(望燎禮)를 끝으로 유교식 홀기에 의해 엄숙히 진행되었다.

석전대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의식행사로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진안군은 진안읍에 위치한 진안향교(도 문화재 자료14호)와 동향면에 위치한 용담향교(도 문화재 자료 17호)에서 매년 봄, 가을 2회 치러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향교에서 석전대제, 분향례를 비롯한 청소년 인성교육, 향교 일요학교 등 유학의 이념과 성현의 가르침을 전수하며 지역의 교육과 예절, 문화유산 계승·발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추석 선물은 장수 농특산물로

## 명품사과 · 한우 등

장수는 예로부터 지리산의 여세가 뻗어 동쪽으로는 장안산과 덕유산, 서쪽으로는 팔공산, 남쪽으로는 대망산, 북쪽으로는 장등산 등에 둘러싸여 산천초목이 선명하고 물이 깨끗한 곳으로 유명하다.



해발 500미터에 위치한 장수를 등 7개 읍면이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풍부한 일조량과 큰 일교차 등으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많다.

장수사과는 국내의 시장에서 명품으로 통한다. 맛은 물론 색깔과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산간고지대(400~700m)로 일교차가 연평균 11℃ 이상이나 돼 착색과 과당형성이 월등하며 과육이 단단하면서도 연해 씹는 소리가 사각사각하고 감칠맛이 좋다. 고랭지로 과실비대기 온도가 낮아 병충해가 적은 만큼 농약 살포량도 적어 안전성도 뛰어나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어 생산자가 소비자들 식탁 끝까지 책임진다.

장수 한우는 해발 650m 이상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인 청정지역에서 사계절 맑은 공기와 자연 압박수를 음용해 영양이 풍부한 초원에서 사육하므로 지방량이 적고 육질

이 부드러우며 육색이 뛰어나 담백한 맛으로 옛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고지대에서 재배된 장수 오미자는 맛과 향이 뛰어나 음료와 한약재의 재료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장수오미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오미자보다 시간드린 함유량이 7%이상 높다. 시간드린(Schisandrin) 성분은 피로회복 및 원기회복에 좋아 수험생, 직장인, 운동선수에게 효과적이며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좋다. 장수에서는 오미자를 이용한 오미자주, 오미자청, 오미자 한과 등도 가공 식품도 생산돼 인기를 끌고 있다.

블랙커런트(Ribes nigrum)가 장수의 새로운 명품 농산물로 등장했다. 블랙커런트(Ribes nigrum)는 라즈베리, 블루베리등과 같은 베리류이며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돼 있어 영양분과 효능이 뛰어나 '베리의 왕'으로 불린다. 유럽 북서부가 원산지인 블랙커런트는 그늘에서 잘 자라며 추위에

강하다. 겨울이 길고 여름이 시원한 장수가 블랙커런트 재배 적지로 확인됐다. 다른 베리류보다 단맛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새콤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아이들도 먹기 편하다. 생으로도 섭취 가능하며 건조해서 먹거나, 청, 잼, 토핑 등으로 활용해 먹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장수 사과와 오미자 등을 활용한 먹이 간편한 즙과 정과 등 가공식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장수 사과를 활용한 가공식품에는 즙과 젤라또, 정과 등이 있으며 토마토도 즙으로 만나볼 수 있다.

오미자는 청과 진액, 오미자주, 오미자 한과 등이 있으며, 블랙커런트 잼, 청 등이 있다.

장수물(www.장수물.com)은 장수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대표 쇼핑몰로, 농민들은 생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 판매시스템을 구축해 판매하고 있다.

/장수=고판호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